

## New IT R&D 발전방안

최문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요 약

IT산업은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성장을 거듭하였고,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국내 산업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으로서 자리 매김하였다. 하지만, 최근 성장률이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IT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서는 자신의 허물을 과감히 벗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기존 IT전략과 차별화된 New IT 발전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IT 전략이 IT 고도화 추진을 위한 IT 중심 발전 전략이었다면, New IT전략은 IT기반 융합산업, IT융합 신산업, Next IT산업 등 3대 성장축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IT로의 수렴과 확산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IT기반 융합산업의 최종 목표는 전통산업과 IT가 만나 자동차, 조선, 의료, 국방, 건설, 섬유, 기계항공 등 7개 주력기 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초일류화를 우선 실현하는 것이다.

IT융합 신산업의 최종 목표는 나노(NT), 바이오(BT), 인지 기술(CT) 등 非IT와 교감을 통하여 IT가 에너지, 환경, 건강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 추진의 핵심인 5대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있다.

5대 신산업으로는 Green IT산업, Welfare-Infra산업, 감성 조명산업, 인지단말산업, THz 응용산업 등을 꼽을 수 있다.

Next IT산업은 기존 14대 IT 분야를 'ETRI 비전 2020' 등 미래 청사진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설계한 것이며, 최종 목표는 TDX, 4M D램, CDMA, 와이브로, DMB, NoLA

등 IT 강국 계보를 이어갈 4G, 미래인터넷, Smart Radio, 실감미디어, 웹3.0, 투명전자소자 등 미래 유망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IT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I. 서 론

IT산업의 고성장 기조를 타고 우리나라는 약 30여년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IT산업은 지난 5년간('03~'07년) 국가 경제성장의 41.8%, 전체 수출 총액의 36%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최근 IT산업이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과거('97~'01년, 연 평균 22.5% 성장)에 비해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었다고 하나, IT산업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2%대 이하)를 훌쩍 뛰어넘는 상당한 규모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97년 외환위기를 IT산업의 훈풍에 힘입어 3년 만에 극복했던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IT 중심의 융합산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IT 산업 활성화를 꼽고 있으며, IT분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지식경제부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과 태양광 발전 등 신산업 전반으로 IT를 확대·내재

화시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략을 지난해 수립하였고, ‘뉴 IT전략’ 등 세부계획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ETRI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New IT 신성장동력 밸굴 추진단’을 자체 구성, 7대 융합산업기술, 5대 융합신산업기술, 13대 Next IT산업기술 등을 밸굴하고, ‘New IT산업 발전방안’을 수립, 올 해부터 본격 R&D 추진 계획이다.

본고에서는 지식경제부 ‘뉴 IT전략’ 및 ETRI ‘비전 2020’ 등과 연계하여 수립한 ETRI ‘New IT R&D 발전방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II. New IT R&D 발전방안

### 1. New IT 개요 및 영역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IT산업을 독자적인 산업영역으로 구축, IT강국을 실현하였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었다.

과거 30년간의 성공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 자신의 허물을 과감히 벗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흐름속에서 기존 IT와 차별화된 New IT 발전방안이 출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IT 전략이 IT 고도화 추진을 위한 IT 중심발전 전략이었다면, New IT전략은 ‘IT기반 융합산업’, ‘IT융합 신산업’, ‘Next IT산업’ 등 3대 성장축간 시너지 창출 가능한 IT로의 수렴과 확산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IT는 스스로 진화·발전하기도 하지만, 물과 같아서 어떤

영역으로도 막힘없이 스며들고,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 산업으로 내재·융합·확산되어 산업을 꽂 피우는 혈관과 신경망을 형성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IT가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전통산업과 융합할 경우, 지능형 자동차, 디지털 선박, 스마트 섬유 등 제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부활시킬 수 있고, IT가 햇빛과 공기 등 우리 주변 환경과 만날 경우, 우리사회가 직면한 에너지·환경·고령화·건강 등의 경제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블루오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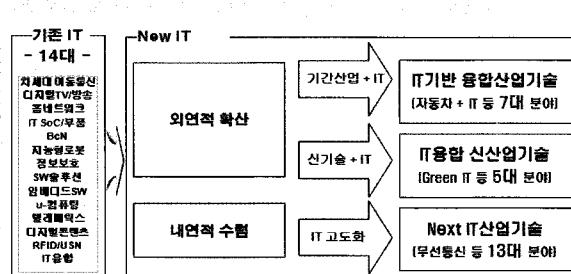
본고에서 제안하고 있는 ‘New IT 발전방안’의 IT기반 융합산업기술, IT융합 신산업기술, Next IT산업기술은 지식경제부 ‘뉴 IT전략’의 Convergence IT, Problem Solver IT, Advancing IT 등과 각각 연계될 수 있음을 사전에 밝혀둔다.

### 2. IT기반 융합산업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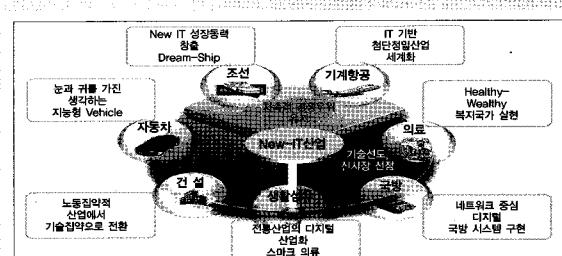
IT기반 융합산업기술의 최종 목표는 전통산업과 IT가 만나 자동차, 조선, 의료, 국방, 건설, 섬유, 기계항공 등 7개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초일류화를 우선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자동차-IT 융합산업분야는 ‘눈과 귀를 가진 생각하는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IT 기반 차량의 눈(레이더, 영상, 초음파 센서 등), 귀(차량간 통신, 차량-인프라간 통신), 두뇌(상황인지, 판단, 예측)에 해당하는 센서, 제어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2006년 3.5%에서 2015년 1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조선-IT 융합산업분야는 산·학·연·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Dream Ship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설계기술의 가



(그림 1) New IT 개요 및 구조



(그림 2) IT기반 융합산업기술 개념

시화, 생산기술의 첨단화, 운항시스템의 국산화 및 선박 유지보수 글로벌화 기술 등을 개발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2006년 35% 수준에서 2012년 40% 이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의료-IT 융합산업분야는 Healthy-Wealthy Korea 구현을 위하여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노령질환 모니터링 기술,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생활습관 질병 조기진단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첨단생명의료서비스 기술 등을 개발하고, 2012년 세계시장 5% 이상 점유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IT 융합산업분야는 USN 기반의 무인항공기, 양방향 위성통신 및 군용 WiBro/WLAN 기반의 이동 탑재형 위성통신기술 등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중심 전장관리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현재 세계 17위권 방산 수출 규모를 2022년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설-IT 융합산업분야는 지능형 건설 및 스마트 도시건설 산업 실현을 위하여 4D GIS 친환경 가상건설기술, 건설 자동화 로봇 서비스기술, 3차원 환경/공간인지 건설로봇기술 등을 개발하고, 선진국 대비 낙후된 건설 엔지니어링 및 IBS 기술을 현재 67%에서 2012년까지 9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섬유-IT 융합산업분야는 전도성 섬유 기반의 웨어러블 컴퓨터 또는 스마트 섬유 상용화를 위하여 웨어러블 오디오/비디오 장치,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및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LCD, PDP 산업 등과 연계를 통하여 2015년 세계 의류시장 점유율 3위 달성을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계·항공-IT 융합산업분야는 인류의 안전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계·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IT기반 디지털 공항구축기술, 농동위상배열 레이더 및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반 전천후 레이더기술, 가상제조 SW 기반 고해상도 공정기술 및 RFID 활용 생산공정기술 등을 개발하고, 2015년 IT융합 기계·항공 세계시장 5위 달성을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 3. IT융합 신산업기술 개발

IT융합 신산업기술의 최종 목표는 나노(NT), 바이오(BT),

인지기술(CT) 등 非IT와 교감을 통하여 에너지, 환경, 건강 등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Green IT 중심의 5대 신산업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IT와 非IT간 융합을 통해 창출 가능한 신산업 분야는 Green IT분야, Welfare-Infra분야, 감성조명분야, 인지단말 분야, THz 응용분야 등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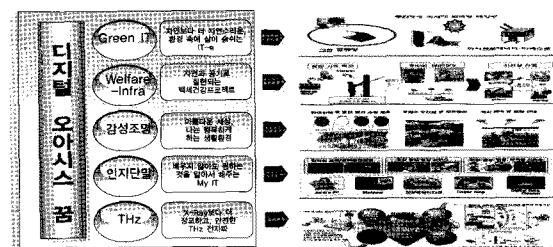
Green IT분야는 지난해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달성을 선도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기술, 그린 IDC(Internet Data Center), 차세대 전력관리기술, 차세대 박형 냉각기술 등을 개발하고, 무공해 에너지 강국 실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기술 관련 고효율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분야는 ETRI가 상당한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대면적 모듈화 기술, Roll to Roll 양산공정기술 등은 조만간 상용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CIGS형 태양전지 분야에서도 핵심원천기술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Welfare-Infra분야는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환경조성에 필요한 전염병·농수산물·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IT기반의 전염병 감지 및 대기환경 측정·분석기술을 개발하고, 2015년 세계 5위 수준의 Welfare-Infra 구축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감성조명분야는 기존의 LED 조명산업에 IT를 접목, 모바일 기기 및 홈-가전을 통해 감성인식 조명시스템 및 인간의 생각과 감성 변화를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서비스 실현을 위한 감성인식기술, 감성LED 조명기술, 미래도시조명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인지단말분야는 PC, 휴대단말 등이 인지기술을 기반으로



(그림 3) IT융합 신산업기술 개념

인터넷 다운로드 등 자율적 업무 수행을 통하여 스스로 기능을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 및 진화 가능한 Aware PC, 오감융합미디어, 디지털데이터 크리너 기술 등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배우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는 자율형 컴퓨터 기술 실현을 최종 목표로 가지고 있다.

THz 응용분야는 '과학의 보고'라고 하는 미개척 전자파 차원(THz)을 활용하여 초대용량 스마트 무선통신기술 및 THz 고유 특성을 활용한 초자연적 메타물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THz 센싱·통신기술, 메타물질기술, 스마트 무선기술 등을 개발하고, THz 응용산업의 핵심원천기술 및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다.

#### 4. Next-IT산업 핵심원천기술 개발

Next IT산업기술은 차세대 이동통신분야, 근거리 무선통신분야, 방송통신융합미디어분야, Advanced BcN분야, 융합부품소재분야, SW인프라분야, 지식정보보안분야, u-컴퓨팅분야, 지능형 서비스로봇분야, RFID/USN분야, 디지털지식미디어분야, 텔레컨버전스분야, 물류IT분야 등 총 13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Next IT산업기술 그룹에 속한 13개 분야는 기존 14대 IT 분야를 'ETRI 비전 2020' 등 미래 청사진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설계한 것이며, 최종 목표는 TDX, 4M D램, CDMA, 와이브로, DMB, NoLA 등 IT 강국 계보를 이어갈 4G, 미래인터넷, Smart Radio, 실감미디어, 웹3.0, 투명전자소자 등 미래 유망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IT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차세대 이동통신분야는 최근 IMT-Advanced(4G) 국제표준 규격이 최대 600Mbps급 무선전송기술로 변경됨에 따라 차세대 이동통신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600Mbps급 3GPP LTE Adv. 무선전송기술(NeMA) & 시스템기술(SPRING)과 2~3Gbps급 IEEE 802.11 VHT(NoLA), 200Mbps급 IEEE 802.16m WiBro-Adv. 등 관련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동통신 단말 세계시장 점유율을 2008년 21%에서 2015년 35%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근거리 무선통신분야는 홈, 빌딩 등 반경 100m 범위 실내와 수 Km 공간의 실외에서 노트북, PDA 및 HD급 단말기 등을 무선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및 IT와 자

동차, 조선, 의료, 건설, 국방, 석유 등 기간산업의 융합 촉진에 필수적인 WLAN, WPAN, Femto-cell기술 등을 개발하고, 2012년까지 전세계 무선랜 장비시장의 20%를 점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융합미디어분야는 3DTV, UDTV, 오감TV 등 실감형 방송서비스와 UCC, 개인방송국 등 참여형 방송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차세대 융합미디어기술, 융합미디어 시스템/전송기술, 3DTV/UDTV기술, 융합미디어 서비스기술 등을 개발하고, 2015년 방송통신융합미디어 솔루션 세계시장 10% 점유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Advanced BcN분야는 유선망, 이동망, 방송망, 모바일 멀티미디어 콘텐츠/단말 등을 ALL-IP로 융합하고, IT와 주력기간산업간 융합 촉진에 필수적인 Micro IP, Mobile VPN, 전광통합망, Mobile IPTV, u-Phone,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기술 등의 개발을 통하여 ALL-IP 커버전스 글로벌 주도권 및 미래인터넷 핵심원천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융합부품소재분야는 IT기반 융합산업, IT융합 신산업, Next-IT산업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지능형 MEMS, 2차 전지, 실감융합단말소자, 플렉서블/투명전자소자, 통합메모리, 멀티코어SoC, 3D패키징, 차세대 광RF 등을 개발하고, 2015년 세계 3대 융합부품소재 강국 실현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W인프라분야는 웹2.0 시대에 맞는 차세대 온라인게임, 이러닝, 전자상거래 등 혁신적인 서비스와 전통산업의 IT 기반 융합산업화 촉진을 위해 웹기반 SaaS 플랫폼, 임베디드 PaaS, 하이퍼콘텐츠 서비스, HCI SW 인프라, 융합SW 플랫폼 기술 등을 개발하고, 2012년 우리나라가 SW 수입국에서 SW 수출국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식정보보안분야는 IT 강국 위상에 걸맞지 않게 미진한 분야 중 하나이며, 인터넷 악플, 불법 다운로드, 개인정보 불법거래, 국가기관 해킹 등이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자신분증, 금융보안시스템,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 상황인지형 보안시스템, 재난 대응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2012년 세계 5위 수준의 보안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u-컴퓨팅분야는 PDA, PMP, MP3P 등 개인 휴대형 단말들과 주변 컴퓨팅 시스템을 상호 연계,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

스를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는 가상 컴퓨팅 환경 구축을 위해 초소형 컴퓨터, 개인무선 네트워크, 가상컴퓨팅 기술 등을 개발하고, 2015년 u-컴퓨팅 산업 3대 강국으로 진입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능형 서비스로봇분야는 향후 자동차 산업 규모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래 유망분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사도우미 로봇, 에듀테인먼트 로봇, 멘탈케어 로봇, 감시정찰 로봇, 방제 로봇 등을 상용화하기 위해 대화기반 사용자 명령인식기술, 로봇감정 생성·표현기술, 3차원 자기위치 인식기술, 자율주행기술 등을 개발하고, 2013년 세계 3대 지능형 서비스로봇 강국 실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RFID/USN분야는 컴퓨터, 통신, 센싱기술을 활용하여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네트워크 구축 및 IT와 산업간 융합 촉진에 필요한 대용량 수동형 RFID, 인지 능동형 RFID, 대규모 분산 센서네트워크, 초경량 센서노드,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술 등을 개발하고, 2012년 차세대 RFID/USN 기술 관련 IPR 20%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지식미디어분야는 IPTV, 3DTV 등 새로운 방통융합 환경에서 필요한 차세대 3D 지식미디어 창출을 위해 동적 객체 3D 복원기술, 맞춤형 학습시스템, 실시간 혼합현실 영상합성기술, i3D 서비스 플랫폼 기술 등을 개발하고, 산업/교육/의료/국방/방재분야에서 필요한 방송용 3D 영상서비스, 개인맞춤형 교육서비스, 벼추얼 매뉴팩처링서비스, 혼

<표 1> Next IT산업기술 개발 주요계획

세부분야	추진목표	R&D 전략
이동통신	세계시장 지배력 1위달성	-글로벌 경쟁력(원천/상용기술) 강화
근거리 무선통신	셀루러시장에 버금가는 시장 창출	-무선플랫폼의 강점 기반 원천기술 확보
방통미디어	세계시장 확산('15년 10% 점유)	-방송 및 전송기술의 원천기술 확보
Advanced BcN	세계시장 8% 점유('12년 현재 1위)	-마리언터넷 등 차세대기술 확보
지식정보보안	세계 5대보안강국('12년 10% 점유)	-고부가가치 창출, 핵심기술 개발
융합부품	'15년 세계 3대 융합부품 강국	-전후방산업 활성화 융합부품 개발
u-텔레컨버전스	세계시장 10% 점유('15년)	-친환경기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SW인프라	수출입흑자 달성('12년)	-IT서비스 확대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능형로봇	세계 3대 강국('13년 15% 점유)	-지능형서비스 로봇 핵심기술 확보
u-컴퓨팅	세계 3대 강국 1천억불('15년)	-초소형·가상컴퓨팅 기술 확보
RFID/USN	세계 3대 강국('12년 20% 점유)	-차세대 지능형 RFID/USN 확보
디지털지식미디어	세계최고 디지털지식미디어 개발	-국내외 R&D 거점(클러스터) 확보
물류IT	국가 물류비 5% 이하로 절감	-지능형 물류운송 시스템 개발

합현실 전투훈련서비스, 의료 시뮬레이션서비스 등 미래사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미디어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텔레컨버전스분야는 언뜻 IT와 자동차 산업간 융합으로도 볼 수 있으나, New IT전략에서는 궁극적으로 '바퀴달린 컴퓨터' 또는 Software-Defined Car라는 새로운 개념의 IT 서비스분야로 정의하고, Predictive 주행안전기술, Adaptive 운전편의기술, Eco-Vehicle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2013년 국내 교통사고율 50% 이상을 절감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물류IT분야는 물류센터, 작업자, 차량에 RFID/USN, LBS/RTLS, 휴대 컴퓨팅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물류체계, 지능형 물류인프라, SW기반 물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마트 카트기술, 생체인식기술, 차량운행통제시스템, RFID와 위성통신기술을 결합한 전자봉인기술 등을 개발, 현재 매출 대비 9.7% 규모의 물류비를 2013년 5% 수준으로 절감하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III. 결 론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성공신화를 이어갈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였고, ETRI에서도 7대 IT기반 융합산업분야와 5대 IT융합 신산업기술 및 13대 Next IT산업기술 기반의 New IT산업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본고에서 소개하고 있는 New IT R&D 발전방안 25개 전략 분야 가운데 현재 우리가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실시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로 IT 기반 융합산업분야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이 대표적이며, IT 융합 신산업분야는 태양전지 등 그런 IT, Next IT산업분야는 이동통신, 방송, 융합부품, SW, RFID/USN, 텔레컨버전스, 로봇, u-컴퓨팅 등으로 압축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형 전지 및 지능형 자동차로, 조선은 디지털 선박으로,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 기반의 녹색성장 산업으로, 이동통신은 4세대 이동통신산업으로, 방송/TV은 3DTV와 실감형 방송산업으로, 융합부품은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SW는 온라인 게임, 이더닝, 디지털 콘텐츠 산업으로, RFID/USN은 지능형 센서산업으로, 텔레컨버전스는 사람이 타고 달리는 컴퓨터 산업으로, 로봇은 자동차 산업에 벼금같 전략산업으로, u-컴퓨팅은 가상 및 초소형 컴퓨팅 산업으로 고도화시켜 국가 성장동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산·학·연·관이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데 합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IT가 우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역할이 막중하고,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IT 국가경쟁력 하락, 정부와 산업체의 IT분야 투자 비중 축소, 중소기업 부도,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등으로 IT업계의 걱정과 우려가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 역할을 다해온 것처럼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데 IT가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IT업계의 무궁한 발전과 IT인들의 소망이 좋은 결실을 맺는 기축년 소띠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 약 력



1974년 서울대학교 응용수학(전산학 학사)  
1978년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석사)  
1989년 미국 North Carolina 주립대 O.R. 네트워크 박사  
1978년 ~ 1999년 ETRI(부장, 단장 역임)  
1991년 ~ 1998년 대한산업공학회 이사  
1993년 ~ 1998년 한국경영과학회 이사  
1998년 ~ 1999년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  
1999년 ~ 2000년 한국통신학회 이사  
2001년 ~ 2003년 GRID Forum Korea 초대 의장

## 최 문 기

2003년 ~ 2004년 대한산업공학회 부회장  
2006년 ~ 2008년 정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1990년 ~ 현재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구기획처장, 학부설립 추진단장, 총장대행, 교학처장 역임)  
2006년 ~ 현재 한국정보통신대학교(CU) 이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A) 이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TA) 이사, ETRI 원장  
2007년 ~ 현재 한국정보사회학회 부회장, CAQ컴퓨터·정보기술분야 공학교육인증)  
분야 국제협의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과학기술출연 기관정책의회 부회장  
2008년 ~ 현재 한국통신학회 부회장

## 참 고 문 헌

1. New IT산업 발전 기획보고서(ETRI, 2008.6.)
2. 뉴 IT전략(지식경제부, 2008.7.)
3. IT Innovation 2012(지식경제부, 2008.7.)
4. IT융합 전통산업 발전전략(지식경제부, 2008.8.)
5. 최문기(2008.8.) 'IT기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도약', IMI 국제경영원 2008 제주 하계포럼
6. 지식경제 통합기술청사진 발표자료(지식경제부, 2008.9.)
7. 제2회 ICT R&D 국제정책 심포지움 발표자료(지식경제부, 2008.10.)
8. 2009 IT 산업전망 컨퍼런스 발표자료(지식경제부, 2008.10.)
9. 최문기(2008.10.) 'New IT산업 발전을 위한 R&D방향', 2009 IT 산업전망 컨퍼런스
10. 지속가능한 IT산업(Green IT) 발전방안(지식경제부, 2008.10.)

